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 정책연구소장, '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' 사업 펼쳐

석현철 | 입력 2022-08-17 발행일 2022-08-17 제24면 수정 2022-08-17 08:10

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 정책연구소장은 12년째 '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마당' 사업을 펼치고 있다.

그동안 이 행사에는 50여 개국 8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44개 대학에서 참가했으며, 이 중 450여 명은 독도 서포터스로 활약하고 있어 독도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하고 있다.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 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뮤지컬 동아리 '위키+위키'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.

석현철기자 shc@yeongnam.com

프린트 취소